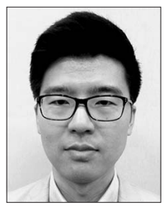
오륙도 글밭

육아의 봄날을 기다리며



김 재 홍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기자)

춘삼월 아들의 새 인생이 시작됐다. 태어난 지 햇수로 4년 만에 남구의 한 사립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마침 부모가 동반 등원하는 적응 기간이 있어 회사에 연차 휴가를 내고 사흘간 아들과 어린이집에 다녔다. 기사 쓰려고 취재만 하던 어린이집에 학부모 자격으로 가게 된 것이다.

대략 1년 전부터 두 자릿수에만 머물던 대기 순번이 줄어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대와 함께 걱정도 겹쳤다. 등원이 결정된 이후부터 아들의 적응도 적응이지만 귀가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육아 관련 카페를 보면 다른 부모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게시물을 찬찬히 읽어보면 한숨만 나온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은 퇴근 이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 '종일반'이라고 해도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눈치 보는 부모가 많다. 하원을 돕는 도우미 아르바이트가 생길 정도다. 친가나 외가의 조부모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라는 농담까지 나온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돼야 그나마 이런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진다.

지금이 구한말도 아닌데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엄마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30~40대 여성 절반은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다가 임신, 육아, 결혼, 자녀 교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자칫 평생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하다가 늙을 수도 있다. 내 자식 돌보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손자나 손녀를 돌볼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도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아빠에겐 꿈과 같은 얘기다.

이런 현실은 통계청 자료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에서 2002년 49만 명으로 30여 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2016년에는 40만6000명으로 40만 명 선에 턱걸이했다. 세계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출생아 수가 40만 명 선을 지나 2040년 26만명, 2060년 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에 출산을 장려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고 임신은 물론 둘째·셋째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며 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쓸 만도 하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 넘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100조 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통계에서 드러났듯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하기보다 혼자 사는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 '혼술'이나 '혼밥'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을 마음껏 즐기자는 '욜로족'이 대세인 시대다.

돈 몇 십만 원으로 이런 청춘남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아이 키우는 재미를 몰라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다. 10년간 들인 100조 원의 예산은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우리에겐 희망이 필요하다. '고생해서 키워놓으면 나중에 보람이 있다'는 절규는 과거 묵묵히 일만 하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나 통하는 얘기다.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 걱정에 불안하지 않고, 유치원 등원 제비뽑기에 당첨됐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엄마나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연차 휴가처럼 쉽게 신청할 수 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전세금을 대느라 월급이 통장에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에 돈을 써야 한다. 그래야 삶의 여유와 희망이 생기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나를 쏙 빼닮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한국의 육아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도 현재로써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어린이 헌장 1조에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실천하려고 오늘도 밤낮으로 처절한 육아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구호를 외치고 싶다. 파이팅!

신선대 <266> 채 규종

■ 퇴직 후 '지리산 1000일 야생 다큐' 촬영하는 백한기 씨

인생 제2막, 대자연 속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다

필자는 일간지 기자로 직장 생활을 하다 물러난 은퇴자이다. '팔팔 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들떠있던 1988년 언론계에 투신, 2016년까지 3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은퇴 후 지리산 자락에 소박한 거처를 마련해 홀로 머문 지 어느덧 두 해가 되어간다. 인생 2막으로 자연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다. 2016년 10월부터 1000일을 목표로 광활한 지리산 속 야생조류와 들짐승의 생태를 영상으로 담는 '와일드 지리산(가칭)'을 촬영하고 있다.

안정과 타협을 택할 나이에 연고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았다. 자투리 국민연금 말고는 이렇다 할 노후준비도 없다. 매일 같은 시간 출근을 하던 삶에서 멀어지면서 세상으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설친 날도 많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또 다른 꿈으로 극복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습하면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다. 그러면 스멀스멀 드리우던 불안감도 어느새 멀찌감치 달아났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와일드 지리산'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깜짝 등단한 것이다.

'와일드 지리산'의 내용은 간단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에 걸쳐 지리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곳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갈등과 공존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그동안 담은 영상들은 아름답고 평온하며 때로 기이하며 때로 가슴 절절한 순간들이 HD화질에 포착됐다.

필자가 주로 촬영하는 곳은 지리산 자락 함양군 마천면의 칠성계곡, 한신계곡, 백송능선, 엄청강 등이다. 등산객 발길이 드문 곳들로 매일 두세 시간을 걸어 도착해, 야생동물이 자주 나타나는 지점에 위장막을 설치하고 촬영에 들어간다.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다면 흡사 신선놀음 같아 보일지 몰라도 생활이 참으로 만만찮다.

촬영을 위해 숲에 위장 텐트를 설치해 두고 한 달 동안 위장 텐트와 카메라 조형물에 대한 적응 기간을 거쳐 야생동물을 촬영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야생동물 촬영은 '보안'과 '정숙'이 생명이다. 더러 위장막 안에서 몇 날 며칠을 새야 할 때도 적지 않다. 너석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 곳곳에 무인카메라를 놓고 이동경로나 먹이활동 등을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런 수십 차례 실패 끝에야 비로소 야생 동물과 조우할 수 있다. 지리산은 나의 이런 수고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반달가슴곰, 담비, 노루, 오소리, 멧돼지, 고라니, 삵, 너구리 등의 진귀한 장면을 담을 수 있었다. 야생동물들은 먹이를 쉽게 구하기 위해 민가로 내려온다. 멸종위기 야생 동물 2급인 담비는 벌꿀을 훔치는가 하면 멧돼지와 노루는 농민이 일궈놓은 밭을 망가뜨린다. 족제비가 농장에 숨어들어 닭갈을 훔치는 장면은 마치 완전범죄를 꿈꾸던 괴도가 CCTV에 덜미를 잡히는 꼴이다. 수십만장의 진귀한 사진과 영상물은 훗날 '지리산 야생 박물관'을 운영해 시민과 공유할 생각이다.

20개월 남짓 야생인처럼 살다 보니 뜻하지 않게 '동가숙 서가숙'해야 했다. 초기에는 벽송사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 선불교의 종가로 일컫는 천년가람이다. 지리산의 웅숭깊은 자연과 야생동물에 애정이 많던 주지스님의 보시로 사찰 내 요사채 하나를 얻어 1년간 생활할 수 있었다. 이후 절을 떠나 필자에게, 마을의 인심 좋은 부부내외가 손님 없는 자신들의 펜션 방 한 칸을 무상으로 내줘 지난 겨울을 무탈하게 났다. 하지만 이마저 봄이 들어 관광성수기에 접어들면 방을 비워줘야 한다. 그러면 폐교의 낡은 교실에서 머물 예정이다. 촬영은 어떡하든 계속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이다. 지리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환경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연 다큐는 3년 촬영이 마무리되는 2019년 10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안에 지리산과 부산을 오가면서 1년 정도 후반 작업도 거쳐야 한다. 계획대로 된다면 영화제에 출품해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

기획부터 연출, 촬영까지 혼자서 하다 보니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다. 휴일은 고사하고 하루 24시간이 근무시간이다. 꿈을 따라가다 보면 미래는 언젠가 열릴 것이라 믿는다.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감독' 백 한 기 이름 석 자를 제대로 남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됐다. 생활은 곤궁하지만 하루의 일상은 지리산의 자연 만큼이나 밝고 빛난다.

백한기
(야생다큐 '와일드 지리산' 감독)

백한기 씨가 지리산에서 촬영한 멸종 위기 2급 담비(왼쪽 사진)와 수달 가족.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대마도 도보여행으로 알게 된 '일본의 비밀'

얼마 전 국경의 섬 대마도 트레킹을 다녀왔다. 섬의 관문인 히타카츠에서 섬 반대편 끄트머리 이즈하라까지 내내 걸었다. 사흘간 100㎞ 남짓 걸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다. 마치 이웃집에 마실 다녀오는 느낌이다. 부산항에서 뱃길로 1시간 남짓, 울릉도나 제주도는 물론이고 경남 통영의 섬들보다 수월해 자주 가는 편이다.

대마도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울릉도 같은 곳이지만 섬 곳곳은 일본 특유의 '정갈함'이 묻어난다. 특히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지 않다. 이런 깨끗한 환경이 대마도를 자주 찾는 이유다.

그런데 이번에 두 발로 걸으면서 섬 곳곳을 들여다본 결과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마도는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한국관광객은 물론이도 마을도 인적도 드물어진다. 마치 오지에 온 듯 황하다. 가끔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를 만나면 반가워 손을 흔들고 싶을 만큼 한산하다.

도보여행은 자동차로는 도통 보기 힘든 '일본의 비밀'을 까발렸다. 마냥 깨끗하고 예뻐보이는 대마도. 하지만 인적 드문 국도변 숲 속에는 온통 쓰레기 천국이다. 음료수캔, 과자봉지, 도시락 용기 등은 물론이고 TV, 컴퓨터,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폐차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쓰레기 종류나 다양성, 규모로 보아 한국관광객이 버리고 간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은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만만찮아 아마도 대마도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야밤에 은밀히 내다버린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양옥녀 (여행칼럼리스트)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8. 3. 21.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김성미 소아청소년의원	용호동	방사선사	1명	18. 3. 20 ~채용시	연봉 2600만원	051-714-2046
활기찬 성모재활센터	문현동	시설요양보호사 (운전필수)	1명	18. 3. 20 ~채용시	월급 158만원	070-4229-8516
퍼니스포츠	용당동	쇼핑몰 포장원	1명	18. 3. 20 ~채용시	월급 157만원	070-8234-8830
㈜엘이디소프트	용당동	광고 홍보사무원	5명	18. 3. 20 ~채용시	연봉 2400만원	070-4400-9100
㈜명건	용호동	데스크 안내원	1명	18. 3. 20 ~채용시	월급 170만원	051-611-4411
대성산업	대연동	지게차 운전원	1명	18. 3. 19 ~채용시	월급 200만원	051-625-7700
예문여자 고등학교	용호동	학교단체 급식조리사	1명	18. 3. 20 ~채용시	월급 164만원	051-660-1506
SK건설	대연동	건설현장 청소원	3명	18. 3. 20 ~채용시	월급 160만원	051-631-1136
케이비 유니온개발	문현동	총무 및 일반사무원	1명	18. 3. 20 ~채용시	월급 170만원	010-7569-0244
케이티에스 글로벌	대연동	매장 계산원	1명	18. 4. 4 까지	월급 215만원 이상	051-717-3395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2018년 2분기 대동골문화센터 강좌 수강생 모집(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3. 14.(수)~강좌별 정원 마감시 (일요일, 월요일 제외)
■ 신청방법 : 대동골문화센터 사무실(2층) 방문신청(선착순)
■ 강좌기간 : 2018. 4. 3.(화)~6. 30.(토)(공휴일 제외)

강 좌 명	대상	운영 요일 및 시간	정원	수강료 (3개월)	강의실
통기타교실(중급)	성인	화요일 10 : 00~12 : 00	15명	60,000원	2층 공연장
통기타교실(초급)	성인	화요일 12 : 30~14 : 30	15명	60,000원	
노래교실(전통가요)	성인	수요일 10 : 00~12 : 00	80명	30,000원	
색소폰	성인	수요일 13 : 00~15 : 00	15명	60,000원	
우쿨렐레	성인	목요일 10 : 00~12 : 00	15명	60,000원	
오카리나	성인	금요일 09 : 30~11 : 30	15명	60,000원	
플룻	성인	금요일 11 : 30~13 : 30	15명	60,000원	
사군자(기초)	성인	화요일 10 : 30~12 : 30	20명	60,000원	3층 제1강의실
왕초보 영어	성인	수요일 13 : 00~15 : 00	20명	60,000원	
생활사주역학(야간)	성인	수요일 19 : 00~21 : 00	20명	60,000원	
서예(한자)	성인	목요일 13 : 00~15 : 00	20명	60,000원	
생활사주역학	성인	목요일 15 : 10~17 : 10	20명	60,000원	
어린이 역사논술 (삼국시대~고려시대)	10세 이상	토요일 10 : 00~12 : 00	20명	60,000원	
CORE-요가	성인	화·목요일 09 : 00~09 : 50	20명	60,000원	3층 제2강의실
줌바 다이어트로빅	성인	화·수·금요일 10 : 00~10 : 50	20명	135,000원	
힐링 요가	성인	화·목요일 11 : 10~12 : 00	20명	60,000원	
라인댄스	성인	수·금요일 09 : 00~09 : 50	20명	60,000원	
생활요가	성인	수·금요일 11 : 30~12 : 20	20명	60,000원	
필라테스 요가	성인	수·금요일 13 : 00~13 : 50	20명	60,000원	
직장인 요가(야간)	성인	수요일 19 : 00~21 : 00	20명	60,000원	
키크기발레(A반)	6~7세	토요일 10 : 00~10 : 50	20명	45,000원	
키크기발레(B반)	8~10세	토요일 11 : 00~11 : 50	20명	45,000원	
방송댄스(A반)	6~10세	토요일 14 : 00~14 : 50	20명	45,000원	
방송댄스(B반)	11세 이상	토요일 15 : 00~15 : 50	20명	45,000원	

※ 결제방법 : 카드, 현금, 계좌이체(신청자명의)
- 결제된 수강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강좌 개강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는 강의료를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수강료 면제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접수시 해당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본 문화센터에는 샤워시설이 없으므로 운동 강좌 수강생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동골문화센터(☎607-3380~3382)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산행을 떠나요

산따라 물 따라

〈2018. 4〉

구 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4/8(일)	고흥 팔영산	010-3832-5971
	한울림산악회	4/8(일)	원주 소금산	010-9975-8688
	약천산악회	4/18(수)	보성 초암산	010-4655-4370
	대오산우회	4/8(일)	대구 비슬산	010-8557-0479
	대삼산악회	4/8(일)	원주 소금산	010-6252-5641
용호동	금강산악회	4/1(일)	여수 영취산	010-3865-9051
	용신산악회	4/8(일)	경주 남산	010-4657-7051
	청산산악회	4/1(일)	군산 선유도	010-8008-2087
	해월산악회	4/15(일)	고흥 팔영산	010-7154-3166
	21세기산악회	4/8(일)	거창 금귀산	010-7563-1943
	환경산악회	4/1(일)	거제 대금산	010-3575-3448
	여남산악회	4/8(일)	완주 운장산	010-3855-6569
	신선산악회	4/8(일)	진안 구봉산	010-6520-0167
	용호산악회	4/22(일)	보성 일림산	010-6266-8525
	용사산악회	4/22(일)	진안 구봉산	010-2124-9329
	여명산악회	4/1(일)	남해 금오산	010-3554-4392
	산오름회산악회	4/1(일)	통영 욕지도	010-7223-2277
	글로벌산악회	4/15(일)	울릉도 투어	010-4752-2940
	청심산악회	4/22(일)	보성 초암산	010-2736-7553
용당동	문화산악회	4/25~27(수~금)	홍도흑산도	010-3856-7850
	용마산악회	4/15(일)	후쿠오카	010-2692-1170
감만동	녹색산악회	4/22(일)	상주 갑장산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4/15(일)	창원 천주산	010-8287-1192
우암동	우일산악회	4/1(일)	여수 영취산	010-3595-5848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4/8(일)	남해 보리암	010-2902-8322
	원뿌리산악회	4/15(일)	금오산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4/1(일)	오사카	010-4035-3432
	문사산악회	4/8(일)	강진 주작산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료 영화상영 안내

장소	영화	상영일	상영정보
대동골 문화센터	내부자들	3. 28.(수) 19 : 00	청소년불가. 선착순 100명
남구 도서관	플립	3. 28.(수) 19 : 00	12세이상 로맨스
	머나먼 세상 속으로	4. 1.(일) 14 : 00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자막
	브레이브 래빗	4. 8.(일) 14 : 00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더빙
	아홉 살 인생	4.15.(일) 14 : 00	전체관람가. 영화. 한국어
	슈퍼 미니	4.22.(일) 14 : 00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대사없음
	오펄드림	4.29.(일) 14 : 00	전체관람가. 영화. 자막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